

## 마스터스 깃발에 사인하는 선수들의 불문율



▲ 마스터스 깃발에 선수들의 사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소년팬들. 사진=AFP연합뉴스

전통과 권위의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다. 우승자의 그린재킷, 흰색 점프슈트의 캐디복장, 그리고 노란색 마스터스 깃발이다. 그중 골프 팬들이 선수들의 사인을 받기 위해 구매하는 마스터스 깃발에는 불문율이 있다.

5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워크는 전날 '선수들이 마스터스 깃발에 사인하는 방법 중에는 불문율이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깃발과 관련한 전통을 소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깃발 중앙에는 오직 마스터스 역대 우승자만이 사인을 할 수 있다.

노란색 마스터스 깃발에는 미국 대륙에 깃발 하나가 꽂힌 로고가 중앙에 있다. 이 로고가 깃발의 절반을 차지하고 로고 주위로는 공백이다. 그

런데 대부분의 선수는 팬들의 요청에 로고 밖 공백에 사인을 한다. 대회가 열리는 오거스타내셔널GC 클럽하우스 1층에도 깃발이 있는데 출전 선수 대부분이 가장 자리에 사인을 하고 로커룸으로 들어간다.

그렇다고 모든 챔피언이 로고 중앙에 사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잭 니클라우스, 타이거 우즈(이상 미국) 등 유명 챔피언들만 사인할 수 있다. 마스터스 2회 우승자인 벤 크伦쇼(미국)는 "존경심 때문에 중앙에 사인하지 않는다. 누군가 거기에 사인을 한다면 니클라우스 같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말했다. 1998년 우승자 마크 오메라(미국)도 "별도로 팬의 요청이 있지 않으면 측면에 사인한다."고 했다.

반면 마스터스에서 두 차례 우승한 베른하르트 랑거(독일)는 "어떤 팬은 가운데 사인하는 것을 좋아한다. 또 어떤 팬은 위나 아래를 좋아한다. 사인은 팬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밝혔다.

1993년에 처음 기념품 매장에 등장한 이 깃발은 현재 3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챔피언

이 로고 중앙에 사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잭 니클라우스, 타이거 우즈(이상 미국) 등 유명 챔피언들만 사인할 수 있다. 마스터스 2회 우승자인 벤 크伦쇼(미국)는 "존경심 때문에 중앙에 사인하지 않는다. 누군가 거기에 사인을 한다면 니클라우스 같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말했다. 1998년 우승자 마크 오메라(미국)도 "별도로 팬의 요청이 있지 않으면 측면에 사인한다."고 했다.

반면 마스터스에서 두 차례 우승한 베른하르트 랑거(독일)는 "어떤 팬은 가운데 사인하는 것을 좋아한다. 또 어떤 팬은 위나 아래를 좋아한다. 사인은 팬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밝혔다.

1993년에 처음 기념품 매장에 등장한 이 깃발은 현재 3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 "김하성, 우승팀에 꼭 필요한 선수"

"김하성처럼 관중을 흥분시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는 4일의 인사이드 더 파드레스 코너에서 김하성을 이렇게 소개했다.

김하성은 이날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정규시즌 홈경기에 선발 출전해

샌디에이고의 승리를 결정 짓는 끝내기 홈런을 날렸다. 김하성의 2023시즌 첫 홈런이자 메이저리그 진출 후 첫 끝내기 홈런이었고, 샌디에이고와 메이저리그 역사에도 남을 기록이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의 샌디에이고 담당 A.J.카사벨에 따르면 9회말 테이빗 달과 김하성의 백투백 홈런은 샌디에이고 55년 역사상 9회 백투백 홈런으로 거둔 첫 끝내기 승리였다. 또한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8번 타자와 9번 타자가 백투백 홈런을 터트려 끝내기 승리를 거둔 경기이기도 했다.

극적인 순간 해결사 역할을 해준 김하성의 스타성에 샌디에이고 팬 모두가 반했다. 관중들은 김하성의 별명인 '아썸 김(Awesome Kim)'을 연호했고 구단 공



The San Diego stunner! Padres fueled by late magic

▲ 4일 끝내기 홈런을 친 김하성을 조명한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사진=MLB.com 캡처

식 SNS는 "어떻게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며 활약상을 도배했다.

인사이드 더 파드레스는 "김하성은 2020년 말 샌디에이고와 계약한 후 그 즉시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됐다."며 "9회말 달의 홈런으로 동점이 된 후 모든 팬이 김하성의 이름을 외치는 가운데 그는 끝내기 홈런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전했다.

압박감이 심한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강심장의 선수는 월드시리즈 우승을 노리는 팀에는 꼭 필요한 자원이다.

인사이드 더 파드레스는 "김하성은 우승팀 로스터에 꼭 필요한 유형의 선수다. 보통 스타들과 별개로 그는 그의 번호가 불릴 때 큰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칭찬했다.



# 커뮤니티 양로병원

한결같은 사랑과 기도로 내 부모님처럼 섬기는 양로병원

- 24시간 병간호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 링거투여, 호스피스케어
- 외상치료, 호흡기치료, 기관절개치료

- 각종 여가활동
- 각종 교육 프로그램
- 아트와 게임
- 종교활동
- 운동 프로그램

### 다양한 제공

- 병원 예약, 차량제공
- 영양상담과
- 다양한 메뉴 제공

메디케어, 메디칼  
Private/HMO/PPO

아늑하고 편안함,  
최첨단 의료시설과 환경  
한국인에게 친절한  
상담을 받으세요.

9620 Fremont Ave., Montclair, CA 91763

**(909) 621-4751**

한국어 상담: Faith Lim (562) 714-7792

[www.communityech.com](http://www.communityech.com)

